

## News

### 은행 유동성 규제완화 내년 3월 말까지 연장

연합뉴스

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했던 은행 LCR 규제 완화는 애초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,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 적용...외화 LCR 70% 이상, 통합 LCR 85% 이상... 금융위는 "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됐다...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연화 방안의 연장·보안을 결정했다"

### 한은, 올해 성장률 -1%대로 낮출까...금리는 동결할듯

뉴시스

지난 5월 한은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-0.2%...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 정점에 이른 뒤 하반기 진정될 것을 전제로한 전망치...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...이주열 한은 총재, "...올해 성장률이 -1%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"

### 코로나 불안에 시중은행 금융 리스크 3배 늘었다

데일리안

상반기 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한 국내 4개 은행들의 시장리스크 최대예상손실액 평균 증가율은 220.0%...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에 내재된 리스크가 제일 큰 것으로 분석... 위험이 가장 빠르게 확대된 곳은 국민은행...시중 금리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급속도로 커지면서, 최악의 위기 시 은행이 감내해야 할 위험도 몸집을 키우고 있는 형국

### 대부업자 낀 저축은행·여전사 주택대출에 LTV 규제 적용

연합뉴스

금감원, 다음 달 2일 저축은행,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...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

### 휘청이는 '공룡' 보험대리점·설계사 빠져나간다

이데일리

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보험대리점 설계사 숫자는 23만2,128명을 기록, 연초에 비해 0.28%(642명) 감소...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수가 감소한 것은 2005년 이후 처... 반면 2012년을 기점으로 줄곧 감소하던 생명보험·손해보험 등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숫자는 증가세...GA 수수료율 하락 효과로 양자간 차이 크게 줄어

### 장마 끝나자 역대급 태풍 온다...비상걸린 손해보험사

아시아경제

기록적인 폭우에 차량 및 농경지 침수, 농작물·가축 폐사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역대급 태풍 '바비'까지 북상하면서 손해보험업계에 비상...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 사고접수 건수는 지난 24일 기준 6만여건...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다수 발생하면서 태양광발전 관련 피해도 지금까지 60여건이 신고

### 은성수-5개 증권사 대표, 오늘 간담회...공매도 논의 주목

뉴스1

은 위원장,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·한국투자증권·삼성증권·키움증권·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... 최근 자본시장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증권업계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...금융위 관계자는 "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공매도 관련 논의도 있을 것"

### '1조 깎아준다' 이동걸 파격 제안...불씨 살아난 아시아나 인수전

이데일리

노딜' 분위기가 팽배하던 아시아나항공 매각작업이 급반전의 기미...채권단, 아시아나에 대한 HDC현산의 인수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동투자를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... 채권단과 HDC현산이 각각 최대 1조5000억원씩 총 3조원을 아시아나 경영 정상화에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...향후 일정은 HDC현산의 답변 내용에 달려...

##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 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 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